

폭염에도 전주 수돗물 '매우 안전'

시, 용담호 '1b(좋음) · 고산정수장 · 배수지 · 가정 수도꼭지 150개소 등 적합 판정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10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절기 특별 수질점검을 통해 전주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상수원인 용담호와 정수처리시설인 고산정수장, 배수지, 가정 수도꼭지 150개소 등 각 급수과정별 시료를 채수해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상수원 내에 질소(N)와 인(P) 등 영양염류의 유입이 증가하고, 높은 수온과 긴 일조량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장마철 비물에 쓸려 내려온 각종 유기물질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등급이 저하돼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맑은물사업본부는 용담호 상수원수의 수질을 36개 항목까지 세밀하게 종합 분석했으며, 그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3ppm이고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류가 검출되지 않아 상수원 수질등급이 '1b(좋음)' 상태로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녹조현상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클로로필' 항목 실험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아 용담호가 맑고 깨끗한 청정 1급수의 수질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산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정수(수돗물)의 경우도, 59개 항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류에 의한 비정상적인 냄새와 맛을



청사초롱 체험 · 야간공연 연계

전주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덕진공원에 연꽃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 300개를 설치하고, 청사초롱 체험과 야간공연을 연계한 덕진공원 청사초롱 야간관람 이벤트를 운영한다. 사진은 덕진공원에 설치한 청사초롱.

평가하는 지표항목인 지오즈민과 2-MB 항목도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소독제인 잔류염소 농도의 경우도 여름철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잔류염소 0.4ppm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맞춰 최대 투입 허용기준치인 4ppm의 5분의 1 수준인 0.8ppm 으로, 최적의 염소투입 농도를 유지해 수돗물 사용과 음용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앞으로도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예측하기 위

해 용담호 상류수계 지류 5개소에 대해 COD 등 35개 항목을 특별 수질조사하고, 정수에 대해서도 관련규정 59개 항목보다 강화한 98개 항목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 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여름철 건강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을 위해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2억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수도관 교체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 오는 2025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지난 1단계 사업에서 누락된 78개 소분류의 노후관을 교체, 개량하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2단계 사업지역 중 효자 1.2동과 중화산1동, 삼천1동, 완산동, 평화동 일부지역 등 7개 소분류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1차 구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아중부영 2차 '희망택배' 사업단 개소

7명 어르신들 참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택배를 배송해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와 전주시니어클럽, 아중부영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 C대한통운 인후점은 10일 오전 아중부영 2차 아파트에서 '희망택배' 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거점(사무실)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물품을 배정 받아 어르신들이 직접 가가호호 배송을 맡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집하시설인 이동식 트레일러 제작,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C대한통운은 인후점은 택배 참여 어르신에게 택배 물품 수집, 배송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또, 전주시니어클럽은 택배 사업 참여 노인 선발교육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희망택배 사업은 대상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60세 이상 총 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며, 택배(물품)를 받는 입주민들은 이웃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마을환경 꾸미기 신청하세요

주민참여사업 23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환경을 가꾸기 위해 MOU 체결기관과 자원봉사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하반기 해피하우스 주민참여사업을 실시한다.

주민참여사업은 해피하우스센터 관할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시에서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 작업을 통해 지역, 세대, 주민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환경을 개선시키는 마을단위 주거복지 일환으로 추진된

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희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조사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참여사업을 통해 칙칙하고 어두운 마을 공간이 향긋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화사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강제입원자 면회 제한'에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강제입원자의 면회를 제한하는 정신병원의 상대로 부당하다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A(75남)씨는 지난 6월 5일 두 아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친동생인 B씨에게 알렸다.

A씨의 강제입원 사실을 알게된 B씨는 지난 6월 10일 해당 정신병원을 방문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보호자로 등록된 두 아들이 허락하지 않아 면회를 거부당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한 차례 면회했다. A씨는 면회 과정에서 "아들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퇴원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퇴원심사청구를 병원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해당 병원은 퇴원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6월 19일에 A씨를 퇴원시켰다. A씨와 B씨는 해당 병원과 관리책임

이 있다며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성민 기자

'팀 내 불화' 경찰 수사팀 징계

수사팀 내에서 내부불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A경감에게 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이 분란을 일으킨 경찰관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경감은 "B경위가 자신을 상관으로 대우하지 않아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경위는 "A경감이 부하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맞섰다.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을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 /이성민 기자

첫마중길 주변 상가 간판 모두 교체한다

전주시, '시범사업' 공모 선정... 상가 55곳 간판 105개 '전통' 표현되게 정비

전주시가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시 앞 백제대로를 첫마중길로 조성한 가운데, 주변 상가 간판도 대대적으로 교체된다.

첫마중길 주변 상가 건물이 대한민국의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에 맞춰 모두 정비되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립을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한 첫마중길 조성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8년 간판개선시범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제안한 첫마중길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돼 2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첫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여 개를 모두 철거하고, 전주만의 고유한 멋과 전통을 잘 나타내는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

역 앞을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전주의 얼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천년전주 풍남문 로터리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풍남문 주변 60여개 상가의 노후된 130여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한옥마을과 풍남문 등 주변 전통보존구역과 어울리는 간판과 건물입면으로 교체했다.

또, 전북도가 주관한 '2016 간판개선 사업사업' 공모에 선정돼 풍남문

주변상가 로터리에서 완경향까지 전라감영 테마거리 130m 구간에 위치한 30개 점포의 간판을 개선하기도 했다.

송방원 건축과장은 "첫 마중길 간판 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만큼, 상가점포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해 전주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전주의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자치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광고수익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 전주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에 선정됐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